



그 동안 着實히 다진 基盤 위에 來日의 값진 火災安全點檢을 꾸미기 위해 온갖 智慧와 힘을 쏟아 새로운 技法으로 보다 알찬 內容, 보다 有益한 雜誌를 만들고자 專心全力을 기울였다.

불조집 365일!
火協이 誕生하면서 職員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火災豫防으로 오직 福祉社會 建設이라는 召命과 使命感으로 不撤晝夜 獻身하며 努力하고 있다고 自負한다.

編輯者는 讀者와 항상 呼吸을 같이하여 火協像 浮刻을 實現하기 위해 科學化된 信賴 받는 精密한 安全點檢 實務의 길잡이로서 使命을 다하는 데 最善을 傾注하였다.

1973년 創刊 以來 온갖 試鍊과 苦難으로 일룩진 歲月은 成長의 年輪이라고 斷定하기 보다는 反省과 後悔의 連續으로 感慨無量하다. 오로지 지속적인 前進을 다짐할 따름이다.

本誌의 發展이 있기까지 끊임없는 協調와 聲援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의 精誠에 眞心으로 고마움을 表하며 이 한 권의 잡지가 火災豫防을 위한 知識 전달과 情報로서 이바지하기를 期待한다. [華]

火災安全點檢 《年 2回刊》

(通卷 14)

登錄番號 바 530

登錄日 1973年 10月 11日

發行日 1980年 7月 1日

印刷日 1980年 6月 26日

非 賣 品

發行人 曹 興 萬

編輯人 金 雲 淑

印刷人 李 南 亨

發行所 社團韓國火災保險協會
法人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614

汝矣島 郵便局 私書函 27號

郵便番號 11510-0000

電話 (782) 8111~8125

(783) 2121~2135

本誌는 雜誌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要綱을 준수한다.